

롯데홈쇼핑 창립 20주년 기념 '원신 라이브' 진행

롯데홈쇼핑이 21일 이완식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CEO 유튜브 소통 라이브 '원신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 대표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로, CEO와 직원이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롯데홈쇼핑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임직원과 함께 만든 20년 결실을 토대로 30, 40년 더 기대되는 롯데홈쇼핑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부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삼성·SK, 코로나 백신 전진기지로

삼성바이오,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생산

삼성, 국내 첫 mRNA 위탁생산 계약 기술이전 작업에 곧바로 착수 예정 SK, 美노바백스와 차세대 백신개발 산업부·복지부, 모더나와 투자 협력



22일 오전(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바라보는 가운데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왼쪽)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하고 있다. 워싱턴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모더나사와 코로나19 mRNA 백신(mRNA-1273)에 대한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워싱턴의 월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약에 따라 모더나사와 백신의 기술이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다. 3분기부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억 회 분량의 백신 바이알(유리병)에 대한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시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36만 4000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글로벌 1위 위탁생산기업이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백신 완제 공정은 인체 투입 전 최종 단계여서 품질 유지와 철저한 무균 처리가 중요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완제공정 사업을 개시한 이래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 의기기종합기구(PMDA) 등에서 총 16건의 관련 승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평균 6개월 걸리는 기술이전부터 검증용 배치 생산까지의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모더나 백신은 21일 국내에서 네 번째로 품목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mRNA 백신의 개발이나 생산을 맡은 업체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위탁생산 계약이 최조다.

존 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모

더나 백신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며 "전 세계의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하여 하반기 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에서 총 16건의 관련 승인을 받았다. 후안 안드레스 모더나 최고 기술운영 및 품질 책임자(CTO&Q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완제 생산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우리 생산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는 백신을 국내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날 미국 노바백스사,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미 기술이전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앞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결합백신 등 차세대 백신의 개발과 SK바이오사이언스 시설을 활용한 생산에 협력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삼바와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연구개발 MOU 등 정부와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복지부, 모더나는 모더나사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모더나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의 국내 투자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해 협력한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도 모더나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14일 리뉴얼 오픈한 이마트 별내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 | 이마트

이마트, '체험형 매장'으로 승부수

지난해 리뉴얼 9개 점포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신장 별내점 포함 15개점 리뉴얼 예정... "체류시간 극대화"

이마트가 지난해 월계점을 시작으로 진행한 고객 관점 매장 재구성 전략(리뉴얼)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 9개점 매장을 리뉴얼한데 이어 올해는 별내점을 시작으로 총 15개점 이상을 리뉴얼할 예정이다. 리뉴얼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화 포인트인 체류에 집중했다.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이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8일 리뉴얼한 월계점의 경우 2020년 6월~2021년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2% 신장했다. 월계점뿐 아니라 지난해 리뉴얼을 진행한 9개 점포 모두 2021년 1~4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신장을 이뤘다. 특히 춘천점은 68.4%, 칠성점은 42.5%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협업 시너지도 나타났다. 2021년 1~4월 신도립점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상승했다.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배송을 위한 PP센터(피킹 앤 패킹·Picking and Packing)를 확대해 온라인 처리 물량을 늘린 것이 매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4일에는 올해 첫 리뉴얼 점포인 별내점을 오픈했다. 보통 리뉴얼 대상 점포는 오픈한 지 15~20년가량 된 곳인데 별내점은 2013년 8월 오픈 이후 8년도 되지 않아 리뉴얼을 진행했다. 2023년까지 인근에 대규모 입주가 계획된 만큼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뉴얼을 단행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두성 이마트 개발담당은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분석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인 체류 요소 강화로 고객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며 "리뉴얼 매장 방문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즐거움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마트의 리뉴얼 전략은 경쟁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개 점포를 폐점한 롯데마트의 경우 올해는 오프라인 매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5일 전남 여수에 개장한 상권 특화형 복합 매장 롯데몰 여수점이 대표적으로, 이는 기존에 있던 롯데마트 여수점을 5개월에 걸쳐 새 단장한 리뉴얼 매장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최태원의 美경제외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ESG경영 중요"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첫 방미 美 경제단체와 연세 네트워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에서 미국 재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한국 경제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23일 대한상과의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 참석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호 등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에는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경제현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조슈아 블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장과는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재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1972년 설립된 BRT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제너럴 모터스, 존슨앤존슨 등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경제단체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CC)와 함께 미국 내 3대 경제단체로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기후변화와 소득격차, 인구감소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와 ESG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과의 BRT가 서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역설했다.

20일에는 미 정보통신산업협회(ITI)의 제이슨 옥스먼 회장, 롱 스트레이어 부회장과 회의를 갖고 반도체·정보통신 정책 동향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과 회의를 갖고 전략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 회장은 워싱턴 체류기간 SK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 역량과 인사이드,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갖고 있는 대미 네트워크를 최대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1일(현지 시간)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활용해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면서 "이번 방미 활동을 기반으로 양국간 교역, 투자, 공동 R&D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웹툰으로 한중일 문화의 다리 놓는다

韓웹툰 각국 론칭해 민간외교 역할 "전문적인 현지화로 높은 퀄리티 장점"



기술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기에 '딱인' 장르가 있느냐, 바로 웹툰이다.

일본의 웹툰(대표 신형준·사진)은 한국의 웹툰을 각국에 론칭해 한국 웹툰의 우수함을 알

리는 한편 민간외교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회사다.

한국 웹툰을 중국에서 서비스하면서 시작된 웹툰 한중일 교량 서비스사업은 현재 영 중이다. 이미 국내에 80여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중국 50여 개, 일본에서도 5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웹툰은 "웹툰의 장점은 현지의 전문화된 현지화 운영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나

라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현지화 과정의 검수과정에 현지인이 참여해 높은 퀄리티의 현지화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대표 웹툰 플랫폼인 픽코마에 우수한 작품들을 상위 랭크 시키며 일본 내 한중일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픽코마 순위권 내에 대표작품(廢妃に轉生した私は小説を書く、絶世之少年、女神育成システ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S급 중국 10여 작품을 포함한 추가 50여 작품을 일본 픽코마, 라인망가, 코미코, 메차코믹 등의 플랫폼을 통해 론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일본 25년 만화 경력의 편집자가 합세해 작품 서비스를 넘어 한중일 공동 작품제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웹툰은 "웹툰의 목표는 웹툰을 통해 한중일 문화가 배척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해준 해외통신원 sol@donga.com

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는 많은 노력을